

# 가족학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경향 및 방법론적 문제점

A Critiqu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n Family Studie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조교수 천혜정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Cheon, Hye-Jung

## 〈Abstract〉

Although scholars have been using qualitative research commonly since 1990 in Korea, discussions on the criteria for the quality of qualitative research have been rar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trends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n Family Studies, and critically examine qualitative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three most prominent journals in the field of family studies. The three journals wer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nd Journal of Family Relations. During the period from 1998 to 2003, twenty seven published articles were identified as qualitative research articles from the three journals. Qualitative research in family studies had a wide variety of purposes, but the articles shared similar characteristics: the main goal wa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The common data collection techniques were in-depth interview, journal writing, and document analysis. Also, all research articles had applied various techniques to data analysis such as grounded theory, or van Manen's method. This article also discussed the usefulness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n broadening and deepening the knowledge body in Korean Family Studies.

▲주요어(Key Words) : 가족학(family studies),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연구 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 I. 서 론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자연현상의 일정한 규칙이나 법칙을 발견해내듯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데에도 소위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Comte이래 사화과학계를 지배하여 왔다. 인간과 가족을 연구하는 가족학도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가족학이라는 학문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인간과 가족 현상을 기술, 설명,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어 온 결과 그 학문적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가정학 관련 학회지의 지난 10여년간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 모수미 등(1996)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가설 검증 연구나 실험 연구가 전체 연구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에 1989년부터 1994년도까지의 연구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Ambert, Adler, Adler, & Deitzner, 1995), 6년동안 527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10개(1.9%)만이 질적 연구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양적 연구가 지배적인 학계에서 질적 연구의 등장은 연구자들간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게임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Eisner와 Peshkin(1990)은 자신의 저서 서문에서 질적 연구자임을 공표한 연구자들이 양적 연구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학계에서 정년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고, 질적 연구로 학위논문을 준비 중인 학생들은 그 논문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가족학계에서는 측정이나 조작적 정의, 변인, 그리고 경험적 사실 등에 대해 회의를 가지는 학자들이 증가하면

\* 주 저 자 : 천혜정 (E-mail : hjcheon@ewha.ac.kr)

서 오직 계량적 연구만이 유일한 과학적 연구인 것으로 수용되어온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대안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2002년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가족관계 연구에서의 방법론적 접근: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쟁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족학 분야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질적 연구들은 다소 혼란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연구 내용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2000년대 이후 가족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가 하나의 유행처럼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 연구 패러다임과 철학에 대한 이론적, 학문적 논의가 전혀 없이 실제 연구부터 행해짐으로 인해 질적 연구의 질적 수준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족학 분야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위 ‘질적 연구’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질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기반성을 통해 가족학에서 보다 양질의 질적 연구를 생산해내기 위한 비판적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최근 6년간(1998~2003년)<sup>1)</sup>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그리고 한국가족관계학회지에 게재된 가족학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대상 논문을 파악하는 동안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즉 어떠한 논문을 질적 연구로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질적 연구로 정의한 경우는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질적 연구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연구목적이나 방법, 연구 결과들을 서술하는데 질적 연구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질적 연구로 정의하지 않은 연구들 중 대부분은 심층 면접을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심층 면접은 연구자가 어떠한 인식론적, 존재론적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였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며, 절차상으로는 공통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연구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 가정, 그리고 가치에 따라 그 의미와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층면접을 사용하였다고해서 모두 질적 연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층 면접을 사용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질적 심층 면접이라고 명명하거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질

적 연구의 특성들을 서술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 스스로 질적 연구라고 정의한 논문과 심층 면접을 사용한 연구들 중 특히 질적 분석을 시도한 논문 27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표 1> 질적 연구 논문들을 분류하는 작업에서 나타난 이러한 어려움과 애매모호함 자체가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분석대상 논문의 발표 년도 및 제목

연도	논문 #	연구 제목
1998	1	노인의 체험을 통해 본 1950, 60년대 가족윤리 고찰
	2	사례를 통해서 본 혼수관행문제 연구
	3	사랑에서의 사회적 성과 자기개발에 대한 연구: 미혼 및 기혼남녀의 면접을 중심으로
1999	4	시설 청소년의 가족상에 관한 사례연구
	5	50대 중년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6	남성의 아버지됨에 대한 연구
	7	시설 청소년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 연구
	8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9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10	기혼남성의 고부관계 인식
	11	일상성에서 본 부부평등성 경험 연구
	12	홀아버지들의 이야기: 자녀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2000	13	이혼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14	혼외관계를 경험한 기혼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
	15	아내학대 행위자의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16	빈곤여성가장의 대처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17	한국 여성노인의 생애사 분석을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인생전환점, 삶의 맥락, 적응전략을 중심으로
	18	무배우자 노인의 성욕구 실태와 해소유형
	19	기혼여성의 결혼불만족과 혼외관계에 대한 탐색적 고찰
	20	빈곤 여성가장의 모-자녀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21	미혼모보호시설 종사자를 통해 본 10대 미혼모의 교육요구도와 시설운영에 관한 연구
	22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성생활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03	23	빈곤 여성가장의 삶의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24	한국여성노인들의 노년기 적응과 노년기 삶의 모습에 대한 질적 연구
	25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한 중국생활체험 분석
	26	한국 여대생의 성 정체감 내면화 과정
	27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 2: 생존 전략을 중심으로 한 중국생활 체험

1)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최근의 질적 연구의 경향을 보기 위함이었지만 실제로 1998년 이전에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 III. 가족학 질적 연구의 경향 및 문제점

#### 1. 철학적 지향의 부재: 질적 연구는 다 똑같은 지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면 통계나 인터뷰를 떠올리며 양적, 질적 연구로 이분화한다. 그러나 방법론(methodology)과 방법(method)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나 인터뷰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방법론이란 연구 방법의 배후에 있는 이론으로써 철학적 틀, 다시 말해 연구에 대한 근본 가정과 특성에 관련된 것이다. 방법론에는 삶에 대한 일반적 지향, 자신에 대한 견해, 그리고 인간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나를 포함한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회의하는 존재론, 그리고 “나는 이 세계를 어떻게 만나는가”의 해답을 구하는 인식론적인 사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식론적 질문은 지식이 경험에 근거한 것인가, 혹은 이성에 근거한 것인가에 관한 논쟁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존재론적 질문은 실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주관적(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거칠게 구분 지을 수 있다. 즉,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그 지적 전통에 따라 건널 수 없는 인식론적 거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존재론과 인식론이 어떻게 결합하는가와 관련된 방법론적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봄으로써 연구문제,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존재론적 질문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논리적으로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서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각 주장에서 조금씩 발췌하여 이들을 절충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존재론적 견해를 성찰하고 그 함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존재론적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적 연구의 기저가 되는 존재론적 관점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인식론적 차이에 따라 연구 방법론을 구분할 때 Habermas(1972)의 comprehensive Theory of Knowledge에 의거한다. Habermas는 인간의 세 가지 근본적 관심이 인식을 유도, 지식을 생성한다고 보았는데 기술적 관심, 의사소통적 관심, 그리고 해방적 관심이 그것이다. 각각의 관심은 궁극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에 준한 행동을 유도하여 지식을 생성하게 하는 학문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기술적 관심은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대한 예측과 통제를 목적으로 기술적·도구적 행동을, 의사소통적 관심은 사회 규범에 대한 합의를 목적으로 의사소통적 행동을, 그리고 해방적 관심은 자유와 독립을 목적으로 해방적 행동을 취하게 한다. 결국 이러한 관심은 각각 경험분석적 과학, 해석적 과학, 그리고 비판적 과학으로 그 학문적 방법론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해석적 과학(interpretive science)에서 가장 대중적인 철학적

근거는 현상학(phenomenology), 해석학(hermeneutics), 그리고 문화기술지학(ethnography)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지적 전통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지향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상학은 모든 선입견(편견)을 버리고 세계 및 세계 속의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존재 믿음을 중지하는 무전체에서 출발하며, 모든 대상을 의식에 나타난 현상 그 자체(사실 그 자체 특히 본질)로써 취급한다(Kockelmanns, 1994). 반면 해석학은 진리에 대한 인식은 현실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이 그 자체로는 가지고 있지 않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포착하지 않으며, 진리를 드러내는 데에는 해석자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석자는 원저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해석자가 현재 시점에서 텍스트가 쓰여진 과거로 소급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석자 자신의 현재적 지평에서 경험을 재창조(Gadamer, 1975, p. 114) 혹은 재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상학은 무전체적인 묘사를 얻고자 하는데 비해 해석학은 해석에 의한 사전 지식을 강조한다. 인간 과학 연구에서 체험의 순수한 기술(description)로서의 현상학과 어떤 텍스트나 상징 형식을 통한 경험으로서의 해석학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Silverman(1984)같은 철학자는 기술적 현상학과 해석적 현상학을 구분한다. 그리고 Husserl의 선형적 방법을 엄밀하게 따르는 사람은 현상학적 연구는 순수한 기술이고 해석은 현상학적 연구의 범위 밖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나 상징 형식을 통한 경험의 해석을 보다 강조하여 기술적 현상학과 해석적 현상학을 구분하기도 하나 현대에는 해석학적 현상학 또는 현상학적 해석학으로 정확한 기술과 해석을 동시에 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민속지학은 인류학에서 발전하였는데, 한 사회에서 실제로 믿고, 행동하고, 공유하는 것을 기술하는 연구 양식을 말한다. 연구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내부자적 관점에 대한 서술과 이해에 덧붙여 보다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해석을 위해 연구자의 외부자적 관점이 동시에 추구된다. 그러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아니라 참여자의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는 실재와 현상을 기술하고 해석한다. 따라서 민속지학 연구자들은 참여자의 문화에 보다 익숙해지고 보다 깊은 이해와 표현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참여자와 생활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근거에 의한 방법론 구분에 따르면 현재 한국 가족학의 질적 연구들은 대부분 해석적(interpretive) 연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질적 연구로 통칭되고 있으며 해석적 과학 중 어떤 지적 전통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 몇 연구만이 문화기술지학 혹은 해석학적 현상학을 기저로 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논문 #5, 9, 12, 25, 27).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의 철학적 전통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sup>2)</sup>. 왜냐하면 이러한 철

2) McClelland(1995)는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자녀를 유치원에

학적 전통은 질적 연구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방법론적 문제들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철학적 배경의 부재는 연구 목적의 혼란이라는 결과를 직간접적으로 야기시킨다고 볼 수 있다.

## 2. 연구 주제와 목적의 부적합성: 과연 질적 연구로 타당한 문제인가?

양적 연구의 목적은 기술(description), 예측(prediction), 통제(control), 그리고 설명(explanation)이라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술(description)은 양적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기술이란 말 그대로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으로, 어떤 현상의 빈도, 중앙치, 분포 등을 탐색하는 가운데 어떤 규칙성이나 원리를 발견하는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부는 갈등 발생시 이성적 대처 행동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부부의 갈등 대처 행동을 잘 기술하고 있다. 또한 양적 연구는 어떤 한 시점에서 얻은 자료의 정보를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예측하는 목적을 가진다. 예를 들면, 원가족의 건강성 측정을 통하여 미래 가족생활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실험 연구들을 통해 그 현상을 일으키는 조건을 제거하거나 제시함으로써 통제를 하는 것도 양적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예측하고, 관련 변인들을 통제함으로써 주어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설명은 주로 이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양적 연구는 결혼과 가족생활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 및 예측하고 이를 적용하여 일반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질적 연구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의미 추구를 지향하고 있다. 즉, 인간이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 있는 사건, 사물, 상황에 부여한 해석과 의미들을 탐색함으로써 인간 행동의 이면에 감추어진 관념, 느낌, 동기, 신념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해(verstehen)란 무엇인가? 이해에 대한 탐구는 해석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해석학은 원래 신학자들에 의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에서 비롯되었다(한국해석학회 1996). 그런데 Schleiermacher는 이해란 어떤 주장의 일반적인 진리에 대한 인식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같은 주장의 배후에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조건들을 통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해석학에서의 이해의 개념은 진리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원래 의도했던 바에 대한 이해로 옮겨가게 되었으며 이해의 목적은 텍스트를 산출하게 된 의도, 상황, 배경이나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역사적 상황에 대한 통찰력 등 저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 되었다. 결국 자신의 상황이나 의도를 포기한 채

보내는 어머니의 경험을 잘 묘사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저자의 의도를 재구성하는데 주력한 나머지 객관적 지식에 대한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해의 본질을 '먼저 가짐(foreshaving)'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Heidegger에 이르면 이해의 본질은 전환점을 맞이한다. 즉, 단순히 대상에 대해 아는 것(knowing)을 넘어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존재의 자기 이해라는 존재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 없이는 대상 혹은 세계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며 동시에 타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Palmer, 1969). 따라서 이해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한 직관적인 공감이나 감정이입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삶의 맥락과 사회적 규칙을 분명히함으로서 인간 행위의 명료함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사의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왜 특정 현상이 특정 방법으로 지각되고 경험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심도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그것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가, 혹은 어떤 경험의 발생이 다른 조건이나 사건들과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한 관심은 질적 연구의 주제에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 연구들의 주요 연구주제,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은 <표 2>과 같다.

가족학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들의 연구 목적을 살펴보면, "살펴보고자 함" "이해하고자 함" "분석하고자 함" "파악하고자 함" "밝히고자 함" "규명하고자 함" 등으로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다. 물론 논문에서 연구자가 이해의 개념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질적 연구의 목적이 되는 이해를 주요한 연구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특히 "오늘날의 혼수 관행과 혼인 관행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발견하기 위함" "이혼 후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함" "어떠한 방법으로 성욕구를 해소하는지 그 실태를 알아보고자 함" "성에 대한 인식과 노년기 성생활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함"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아내학대 실태 및 아내학대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함" 등의 연구 목적을 살펴볼 때, 이러한 연구들은 실태 조사 및 요인규명 등 양적 연구에 더욱 적합한 연구 주제이자 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혼수와 관련된 질적 연구로는 오히려 혼인 전 과정에서 당사자나 가족들이 느끼는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혼인을 준비하는 인간이나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Weber가 인간이나 인간의 행위는 '이해'의 대상이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뜻을 새겨볼만하다.

또한 연구 목적에 대한 서술이 나타난 본문의 여러 부분에서 다소 모순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회적 성이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이 자기 개발이라는 요소와 더불어 어떤 의미를 띠게

&lt;표 2&gt; 분석대상 논문들의 연구주제, 목적 및 연구대상

연도	논문 #	연구 주제 및 목적	연구대상
1998	1	노인의 체험을 통해 1950,60년대의 가정관, 부부윤리, 부모자녀윤리의 실상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그 시대를 산 노인들의 삶의 과정을 생애사적인 접근을 통해 이해하고자 함	70세 이상의 할아버지 4명, 할머니 9명
	2	혼수 관행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자 사례를 중심으로 혼인 전과정의 비용과 내용 및 그에 대한 의식, 혼인후의 평가 등을 통해 오늘날의 혼수 관행을 알며, 혼인 관행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발견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혼인 관행의 방향제시에 기초가 되고자 함	서울시에 거주하며 최근 2년안에 혼인을 한 사례(10사례, 13명)
1999	3	전통적 결혼, 독립성, 상호의존성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미혼 및 기혼 남녀들이 경험하는 사랑에서 사회적 성과 자기개발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여성 10명(미혼 5, 기혼 5), 남성 8명(미혼 5명, 기혼 3명)으로 총 18사례
	4	시설 청소년의 가족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시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상은 어떠하며, 시설 생활에서 청소년들이 갖는 미래 가족생활설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함	12 사례(남자 5명, 여자 7명)
	5	50대 중년 여성의 모성 경험의 특징, 중년기 모성 경험의 양상과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어머니로서의 중년기 여성에게 주어진 과제를 탐색하는 것임/전생애의 맥락에서 중년기 모성 경험에 대한 그들의 개념, 상황 정의, 해석들을 이해하고자 함/50대 중년 여성 세대의 모성 경험은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이들 세대의 특징 혹은 생애 주기별 특징과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50대 중년 여성 10명
	6	남성의 부성 경험의 내용은 무엇이며 남성은 아버지가됨으로써 어떤 변화를 겪게 되며 이러한 경험들이 남성의 성인기 발달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밝히고자 함	취학전 첫 자녀를 둔 아버지 15명
2000	7	시설 출신자 청소년이 지닌 개인적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시설 출신자 청소년이 시설 생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적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시설 청소년이 미래 건강 가족 형성 준비에 필요한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시설 출신 기혼, 미혼자 20명과 시설 청소년 10명으로 총 30명
	8	이혼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이혼 후 적응 양상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함/이혼자들이 이혼 후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어떠한 요인들이 이혼 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질적 연구를 통해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실태파악과 요인규명을 통해 이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이혼한 여성 11명과 별거 중인 여성 2명으로 총 13명
	9	모성 경험의 개인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여성의 관점에서 임신에서 초기 양육에 이르는 초기 모성 경험의 내용들을 고찰하고자 함/모성 경험의 다차원적인 특성으로 인해 당사자의 경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질적 연구가 적합함	10명의 제보자와 2명의 보조제보자/첫자녀가 취학전인 저소득층 및 중산층 기혼 여성 중 취업 경험과 계층을 고려하여 선정함
	10	남성들이 고부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고자 함/보다 구체적으로는 기혼 남성이 인식하는 고부관계의 성격, 고부갈등 원인, 고부관계에서 남성의 역할, 고부갈등 해결방법을 중심으로 고부관계를 분석하고자 함	결혼한지 10년이내이며 동거하면서 고부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장남 역할을 하고 있는 기혼 남성 5명
2001	11	우리 사회의 대졸 이상의 젊은 부부들이 과연 평등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적 경험을 수집해보고자 함/평등성이라 수량화된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는 것보다 자신이 경험한 주관적 느낌을 기술하는 것이 보다 사실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질적인 접근을 시도함/전업 주부들의 부부 관계 평등성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을 통해 해석하며, 가족 상담 장면에서 이러한 결과들을 활용하고자 함	대졸 이상 전업 주부로서 자녀가 있는 주부 2명
	12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자녀의 학교 교육과 관련되어 겪는 경험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이혼한지 2년 이상, 초등학교에 다니는 1명 이상의 자녀와 동거하는 아버지 5명
	13	이혼 여성의 어머니로서 경험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며 이혼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머니로서의 경험은 이혼 여성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이혼 여성의 모성 정체성이 갖는 복합적인 의미들을 밝히고자 함	이혼한 어머니 7명

&lt;표 2&gt; 분석대상 논문들의 연구주제, 목적 및 연구대상 &lt;계속&gt;

연도	논문 #	연구 주제 및 목적	연구대상
2002	14	실제 혼외관계를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혼전, 혼내, 혼외 성경험을 살펴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유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 불평등한 결혼 생활에 의한 불만이 기혼 여성의 혼외 관계 경험과 어떤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담론 분석을 통해 유추해보고자 함	혼외 관계에 있는(또는 경험한) 여성 16명
	15	개인의 심리행동적 특성과 부부관계적 특성, 그리고 기타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지지체계 등 사회환경적 요인을 설정하고 이를 요인들이 아내학대 실태 및 아내학대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분석으로 규명하고자 함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받은 행위자 30명
	16	빈곤 여성 가장이 가족을 부양하는 삶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대처 전략은 빈곤 여성 가장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밝히고자 함/빈곤의 문제와 여성 가장으로서의 어려움이라는 빈곤 여성 가장의 복합적인 경험은 질적 연구를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 모자 가정의 여성 가장 15명
	17	노인의 회상으로 구성된 생애사를 수집하여 노인들이 일생동안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떠한 변화와 관계들을 경험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어떠한 적응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를 통해 노인들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음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3명의 65세 이상 여성 노인 13명
	18	무배우자 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성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성욕구를 해소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하는지 그 실태와 성욕구 해소 대상자와 빈도 등을 알아보고자 함	무배우자 남성노인 7명과 여성노인 8명
	19	불평등한 결혼생활에 의한 불만이 기혼여성의 혼외관계 경험과 어떤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담론분석으로 통해 유추하고자 함	혼외관계 경험이 있는 16명의 기혼여성
	20	빈곤여성가장 가족의 핵심적인 관계인 모-자녀 관계의 의미와 상호작용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빈곤여성가장 12명
	21	미혼모와 가장 가까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복지적 욕구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눈을 통해 미혼모의 특성과 그들의 요구도를 파악하고, 시설종사자들이 피력하고 있는 다양한 견해들을 분석하고자 함	미혼모 보호시설 종사자 4명
	22	노인들은 노년기 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노인들의 부부간 성생활 실태는 어떠한지, 성에 대한 인식과 노년기 성생활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파악함으로써 노년의 성을 올바로 이해하고자 질적연구를 시도함	유배우자 65세 이상 남녀노인 17명
2003	23	빈곤여성가장들이 말하는 빈곤자의 삶, 남편, 직업, 그리고 기댈 곳에 대해 알아보고, 빈곤여성가장이 되는 사회적 과정, 가족적 과정, 개인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삶의 과정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15명을 면접한 후 전형적 사례에 포함되지 않는 3명은 제외함
	24	무엇이 노년기 적용에 중요하며 어떻게 노년기 삶을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생애사 자료에 토대를 두고 노년기 적용과 관련된 주제를 찾고 분석하고 노년기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함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3명의 여성노인
	25	북한이탈여성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회체계가 그들의 존재적 의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북한이탈여성들의 중국에서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고자 함	재중북한이탈여성 13명
	26	여대생들이 어떻게 자신의 성정체감을 내면화하는지, 성정체감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정체감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함	자신의 성정체감 형성과정을 서술한 보고서 30부
	27	중국에서 북한이탈여성이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하여 어떠한 생존전략을 선택하는지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의 현실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감하고자 함	13명의 20-30대 재중북한이탈여성

되는지를 다룬다”고 하였으나(논문 # 3), 본문 중에 “사회적 성과 자기 개발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라는 목적을 서술하고 있어 모순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불평등한 결혼생활에 의한 불만이 기혼여성의 혼외관계 경험과 어떤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유추하고 한 연구(논문 # 19) 역시 일

종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목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연구 주제와 목적이 질적 연구의 목적인 ‘이해’와 거리가 있는 것은 질적 연구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배경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며 왜 질적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성찰이 부족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분석 대상인 연구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모성이나 부성 경험 관련 연구와 노인의 삶에 대한 논문이 각각 5편이며, 빈곤 여성 가장의 삶에 대한 논문 3편, 혼외관계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의 경험에 대한 논문 2편, 북한 이탈 여성의 삶에 대한 논문이 2편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이혼 후 적응과정, 고부관계에 대한 기혼남성의 경험, 아내 학대 행위자의 특성, 혼수, 성정체감, 10대 미혼모의 경험, 부부평등성 경험, 사랑, 가족상 등에 대한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 주제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연구 대상의 특수성이다. 이들 논문에서 왜 질적 연구가 적합한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연구 대상의 특수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연구 주제나 연구 대상 때문에, 그리고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기가 어려워 비교적 소수의 사람으로 연구가 가능한 질적 연구를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양적 연구의 제한점 때문에 질적 연구를 택하였다는 서술도 많이 나타난다. 즉,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기존의 양적인 연구가 보여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의 특성 때문에 질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가 부족한 집단에 대한 연구를 위한 방법론도 아니요, 양적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양적인 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론도 아니다. 질적 연구는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인식론과 존재론이 결합한 방법론적인 결과로써 인간이나 인간 행위의 의미를 파악하고 인간 경험에 대한 통찰을 위한 것이다.

### 3. 자료 수집 및 절차의 문제: 심층 면접이 양질(良質)의 질적 연구를 보장하는가?

심층 면접이 왜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적당한가에 대한 대답은 심층 면접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에 대한 Hultgren(1989)의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심층 면접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에 대한 의식을 성취하길 희망한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다--행동을 지배하는 어떤 규칙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니다. 경험에 대한 설명은 그러한 이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여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그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향상시킨다(p. 53).

심층 면접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이슈가 있다. 구조화된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된 폐쇄형 인터뷰를 사용할 것인가, 혹은 형식에 얹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대화의 흐름을 강조하는 개방형 인터뷰를 사용할 것인가이다. 구조화된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된 인터뷰는 준비된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인터뷰 참가자가 말한 진술들 중 애매한 것들을 명확히 하거나, 추상적이고 짧은 답변에 대해 정교화시키는 작업에 집중한다. 또한 인터뷰 참가자가 말한 것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을 첨가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반

면, 비구조화된 인터뷰는 구조화된 인터뷰와 같이 질문을 준비하기는 하지만 보다 자유로운 대화 스타일을 강조한다. 인터뷰 참가자가 반응하는 것에 따라 인터뷰 질문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인터뷰 참가자의 사고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뷰 실행자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노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구조화된 인터뷰는 보다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복잡한 질문과 청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비구조화된 인터뷰가 본 논문의 주제인 질적 인터뷰와 일맥상통하며, 질적 연구를 지향하는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학 분야의 질적 연구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심층 면접을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다.<표 3> 이 중 대부분이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면접 이외에 참여관찰(# 4, 9)을 병행하고 있거나, 다양한 형식의 보조자료(# 2, 25, 27)를 활용한 연구도 있다. 이 외 참여자가 서술한 자기보고식 문서를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논문 # 26).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선행연구를 통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혼 후 적응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에서는 변경할 수 없는 요인들(연령 및 재혼 기간, 이혼 후 기간, 자녀로부터 받는 지원, 이혼 제안 및 이혼 과정의 주도 여부)과 변경할 수 있는 요인들(경제적 형편, 사회적 연결망,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새로운 이성 관계 형성 및 재혼, 상담소 이용)을 선행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기혼 남성의 고부 관계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도 연구자가 인터뷰에 앞서 기혼 남성이 인식하는 고부관계의 성격, 고부갈등 원인, 고부관계에서의 남성역할, 고부갈등 해결방법으로 테마를 설정하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연구 참가자들이 가급적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범주화된 주제를 미리 정해놓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질적 연구의 장점 혹은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연구들이 '심층면접'을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짧으면 30분에서 길면 6시간 정도의 1회 면접이 과연 '심층'면접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자료수집 방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이 개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sup>3)</sup>. 예를 들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이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들으면서 그들의 경험과 견해를 심도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토론을 통하여 연구자는 연구주제에 대해 해석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Deacon(2000)은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인 방법, 예를 들면 예술품, 사진, 메타포 등을 제안한 바 있다.

3) Morrow & Smith(1995)는 아동기의 성적 학대를 극복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개별 심층인터뷰, 10주에 걸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문서화된 증거 등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lt;표 3&gt; 분석대상 논문들의 자료수집방법

연도	논문 #	자료수집방법	연구참여 동의에 관한 기술
1998	1	비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심층면접을 실시함; 면접자가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자유로이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됨; 면접시간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하루종일 진행된 경우도 있음; 응답자의 집을 방문하여 면접이 진행됨	면접의 전 과정은 응답자의 양해 아래 녹음됨
1999	2	구체적인 사례수집을 위해 교수 2인과 연구원 2인으로 구성된 총 4인이 심층면접의 방법으로 함;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모한 사례 및 흔수로 인한 가정파탄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례	구체적 언급 없음
	3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함; 유목적 표집방법; 개방형 질문을 주로 하되 반구조화된 질문과 구조화된 질문을 보완적으로 활용함; 반구조화된 질문은 연령, 학력, 직업, 결혼지위 등 피면접자의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은 본격적인 면접과정에서 사용함; 면접 시간은 대개 2시간 정도로 대부분 1차면접임	피면접자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기를 사용함
	4	심층면접(부족한 부분에 대한 2차 면접 실시); 시설 청소년 및 시설종사자와 면접 함; 참여관찰(여름 수련회에 보조교사로 참여함); 1차 면접 후 시설종사자들과 면접하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연구대상자와 2차 면접을 함; 면접에서 대화내용을 직접 기록하고 대상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함	시설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연구에 참여하기로 협약한 대상으로 선정함; 시설종사자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이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협약받음
	5	질적연구의 한 방법인 심층면접방법을 활용함; 면접소요시간은 평균 4시간 정도; 연구자가 미리 질문사항을 작성하거나 질문의 순서를 정하지 않고 생애주기 전체를 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심층면접이 가능한 조건을 제보자가 받아들이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공감하는가를 기준으로 함
2000	6	다양한 탐사질문이 가능한 개별적인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됨;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비구조화된 인터뷰 방법이 적합함; 면접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 필요한 경우 2차 면접 실시; 면접자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응답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도록 함	구체적 언급 없음
	7	심층적인 질적면접법(3시간 정도의 1차 면접 후 총 2~3회씩 면접함)	비밀보장과 녹음기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협약을 받음
	8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중심으로 한 심층면접; 질문내용은 연령, 결혼기간, 이혼 후 기간, 자녀와 이혼제안여부, 경제적 형편, 사회적 연결망, 전배우자에 대한 애착, 이성관계 및 재혼에 대한 생각, 상담소 이용 여부; 1회 면접(2사례는 전화로 보충)	녹음기 사용에 대한 양해를 구함
	9	질적연구의 일종인 문화기술적 접근을 취함; 참여관찰과 심층면접; 면접(1~3회); 참여관찰을 위해 제보자의 집에서 면접함; 스프래들리의 발전식 연구 사이클에 따라 면접을 진행함	심층면접이 가능한 조건을 제보자가 받아들이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공감하는가를 기준으로 함
	10	심층면접; 인터뷰를 통한 질적조사방법; 고부관계의 성격, 원인, 남성역할, 해결방법이란 테마를 인터뷰 시작 전 설정함; 1~2시간의 면접; 응답이 불충분한 경우 추후 만나거나 전화로 보완함	연구대상자의 동의아래 녹음
2001	11	참여자 1(30분 면접), 참여자 2(50분 면접); 구조화된 개방적 질문; 녹음; 수기에 의한 기록을 통해 그 상황과 기분을 전달함	구체적 언급 없음
	12	2회의 인터뷰; 구조화하지 않고 가능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도록 함; 주제와 관련된 넓은 질문과 확인을 위한 보조질문을 준비함; 두 번째 만남에서는 첫 인터뷰의 내용을 분석한 후 보충설명이나 명료화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질문과 청취가 이루어졌으며 첫 번째 인터뷰에서 발견한 주요 주제들에 대한 해석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하는 작업이 이루어짐	비밀보장과 녹음기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협약을 받음
	13	심층면접; 비구조화된 방식; 평균 4시간 정도의 1회 면접	제보자의 양해를 얻어 녹음기사용

&lt;표 3&gt; 분석대상 논문들의 자료수집방법 &lt;개속&gt;

연도	논문 #	자료수집방법	연구참여 동의에 관한 기술
	14	면접; 반구조화된 질문지; 의심이 가거나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전화통화를 통해 보조면접이 이루어짐	녹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보조원이 받아 적음
	15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심층면접을 실시함; 행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장과정, 결혼 및 직업생활, 부부관계 및 기타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개인의 자각, 가치관, 심리정서적 상태 등 아내학대와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이 조사됨	구체적 언급 없음
	16	심층면접; 2시간 30분에서 4시간의 1회 면접; 성장과정, 빈곤여성가장이 된 과정, 직업생활, 가족 및 사회관계망과의 관계 등에 대해 면접함	전화를 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면접을 요청함; 제보자의 양해하에 면접 내용을 녹음함
	17	어린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가능하면 충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면접; 녹음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메모 및 노인이 속한 환경에 대한 관찰 자료 활용	구체적 언급 없음
	18	질적면접법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모집함; 비밀 보장과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함
	19	면접; 반구조화된 질문지; 의심이 가거나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전화통화를 통해 보조면접이 이루어짐	기꺼이 응하는 대상에 한하여 면접이 이루어짐
	20	심층면접; 2시간 30분에서 4시간의 1회 면접	전화로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면접을 요청함
	21	질적연구방법 중 심층면접법을 사용함;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면접; 몇 가지 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응답자의 양해를 얻은 후 녹음하고 연구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절차를 밟음
	22	심층면접; 1시간 정도; 노년기 성에 대한 인식, 현재의 성생활, 성생활과 관련되는 요소(장애요인)에 관한 질문을 함	연구목적을 설명한 뒤 면접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함
	23	질적연구의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면접; 2시간 30분에서 4시간의 1회 면접; 성장과정, 빈곤여성가장이 된 과정, 가족 및 사회관계망과의 관계, 직업생활	전화로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면접을 요청함
	24	생애사 연구방법; 면접;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녹음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메모 및 노인이 속한 환경에 대한 관찰 자료 활용	구체적 언급 없음
	25	해석학적 현상학; 관찰과 심층면접; 학술연구, 편지, 신문기사 및 영상물 등; 1회에서 최대 4회; 1시간 30분에서 6시간	구체적 언급 없음
	26	자기보고서에 대한 질적내용분석	구체적 언급 없음
	27	해석학적 현상학; 관찰과 심층면접; 학술연구, 편지, 신문기사 및 영상물 등; 1회에서 최대 4회; 1시간 30분에서 6시간	구체적 언급 없음

분석대상 논문들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을 서술한 내용을 보면, 참가자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참가자들은 누구인지, 인터뷰는 어디서 어떻게 행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몇몇 연구에서는 면접 참가자의 모집 과정과 참가자의 일반적 배경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Smith(1990)가 표현한 것처럼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언제 어디서 연구가 행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어떻게 연구의 결과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참가자의 허락하에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녹음에 대한 동의 혹은 사전 동의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Eisner(1991)는 사전 동의라는 개념은 연구자가 인터뷰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 결과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신중하게 계획된 실험적인 연구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따라가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삼는 질적 인터뷰 연구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참가자가 인터뷰를 승낙하였다고 해서 연구자가 자료나 분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Lincoln(1990)은 질적 연구에서 사전 동의라는 개념을 연구 과정 전체를 통해 일어나는 대화, 즉 “연구 과정과 산물에 대한 참가자와의 협상, 그래서 연구의 최종 산물을 공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p. 289)이라는 개념과 대체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 4. 자료 분석 방법의 부재: 녹음된 면접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오늘날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는 일상적인 방법은 녹음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인터뷰 실행자가 인터뷰의 주제와 그 과정에 집중할 수 있다. 어휘들과 어조, 침묵들과 같은 것이 영구적인 형태로 보존된다. 그러나 오디오 테이프는 인터뷰 내용을 탈맥락화시킨다. 그것은 그 상황의 시각적인 측면이나 주변 환경, 또는 참여자의 얼굴 표정이나 신체적인 표현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인터뷰 실행자는 자신의 감정이입과 기억에 의존해서 인터뷰가 끝난 후 그 중요한 면을 기록하고, 때로는 인터뷰 도중 기록한 메모의 도움을 받는다. 기억이 편견으로 가득 찬 주관적인 방법이라고 비난받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인터뷰 실행자의 적극적인 청취와 기억은 선택적인 여파 장치로서 이상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어떤 의미를 계속 유지시켜 준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이 녹음기에서부터 곧장 분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분석을 하기 위한 일상적인 절차는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 과정은 자체적인 법칙을 갖고 있는 구어에서 또 다른 법칙을 갖고 있는 문어로 옮기는 일이다. 따라서 인터뷰를 서면으로 기록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문장들이 되풀이되는 표현을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 한 단어 한 단어 기록하여야 하는가? 또는 인터뷰 내용이 좀 더 형식적이고 문어적인 스타일로 변형되어야 하는가? 전체 인터뷰 내용이 정확히 재표현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연구자가 내용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요약하고 압축해야 하는가? 침묵, 억양, 웃음, 한숨 등과 같은 표현들이 얼마나 세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표준적인 답변은 없다. 다만 연구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를 범주화하거나 요약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면, 기록본의 어느 정도의 편집은 가능

하다. 그러나 기록본이 심리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라면 감정적인 어조까지 포함한 말을 그대로 옮길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의 답변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Kvale, 1983).

대부분의 연구들이 심층 면접시 인터뷰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한 후 전체 내용을 필사본으로 만들어 분석을 하였다고 자료 분석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자료분석 방법 중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분석방법에 의한 논문(논문 #7, 24), van Manen의 분석방법(논문 # 11, 12, 25, 27), Spradley식 접근방법(논문 # 20), 그리고 기타 분석방법(논문 # 26)을 제외하고 분석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질적 연구논문의 결과가 보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이 서술되어야 한다. 물론 질적 연구가 연구자의 주관이나 통찰에 많이 의존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연구자가 주요 연구도구인 질적 연구에서 양적 연구와 같이 자료 분석방법에 대해 단계별 절차를 설명하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녹음된 자료를 전사하여 분석하였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연구결과에 대해 공감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sup>4)</sup>.

자료분석 방법에서의 또 다른 이슈는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1차 면접으로 끝나고 있으며, 2차 면접을 한 경우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질문을 하기 위함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참가자가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는 질적 연구의 근본적인 입장은 생각해볼 때, 면접 내용에 대한 1차 분석 후 면접 참가자와의 후속 작업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질적 연구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는 양적 연구의 그것과 개념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질적 연구에서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제안된 여러 가지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연구 대상자의 경험에 대한 참다운 이해에 도달하는 것은(신뢰도 및 타당도) 두개의 주관성--연구자의 주관성과 연구대상자의 주관성--의 상호작용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텍스트와 연구자,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주관성이 지속적인 직간접의 대화과정을 거쳐 서로 만나는 상호주관적 합의(intersubjective agreement)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첫 번째 인터뷰시 발견한 테마를 두 번째 인터뷰때 참가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최종 결과물에 대해 연구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며, 이것은 해석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Richardson(1992)은 미혼모인 May의 36페이지짜리 분량의 인터뷰를 3페이지의 시로 변형시켰지만 참여자의 목소리, 관점, 그리고 이야기가 얼마나 감명깊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lt;표 4&gt; 분석대상 논문들의 자료분석방법

연도	논문 #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도
1998	1	녹음내용을 각 면접자가 전체의 내용을 전사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함; 구체적 분석방법 언급 없음	구체적 언급 없음
	2	구체적 언급 없음	구체적 언급 없음
1999	3	분석틀을 서술함; 응답내용에 대한 채록 및 숙독, 범주화가 가능한 모든 내용을 표로 정리함, 그리고 중첩되는 범주를 하나로 묶고 최종적인 분석범주를 구성함; 구체적인 분석방법 언급 없음	구체적 언급 없음
	4	'가족상'에 대한 서술을 긍정적, 부정적 축면으로 분류하여 처리함; 구체적 분석방법 언급 없음	구체적 언급 없음
2000	5	구체적 언급 없음	구체적 언급 없음
	6	처음에 설정한 큰 주제하에 내용을 여러번 숙독하여 범주화가 가능한 내용을 먼저 1차 분류하고 큰 영역으로 분류함; 분석틀을 연구문제 형식으로 제시함; 피면접자의 허락하에 녹음되었고 이것을 그대로 전사하여 기록함	구체적 언급 없음
	7	건강가족적 관점과 근거이론 접근법에서 제시한 개방적 부호화 과정을 사용하여 정리함	구체적 언급 없음
	8	구체적 언급 없음	구체적 언급 없음
	9	구체적 언급 없음	구체적 언급 없음
2001	10	구체적 언급 없음	구체적 언급 없음
	11	녹음된 내용과 수기에 의한 기록을 필사본으로 옮겨 분석자료를 구성함; van Manen의 전체론적방법과 선택적방법을 적용함	구체적 언급 없음
	12	녹음된 내용을 필사본으로 옮겨 분석자료를 마련함; van Manen의 전체론적방법과 선택적방법을 적용함	삼각검증법; 상호주관적 합의가 이루어짐
	13	구체적 언급 없음	구체적 언급 없음
2002	14	구체적 언급 없음	구체적 언급 없음
	15	구체적 언급 없음	구체적 언급 없음
	16	구체적 언급 없음	구체적 언급 없음
	17	구체적 언급 없음	구체적 언급 없음
	18	녹음된 내용을 필사한 후 한줄씩 검토하여 성욕구와 해소방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유형화함; 구체적 언급 없음	구체적 언급 없음
	19	구체적 언급 없음	구체적 언급 없음
	20	전사본에 대한 반복적 읽기; 모-자녀관계에 대한 주요 테마를 찾아낸 후, 중요한 테마를 범주화함; Spradley의 분류분석	구체적 언급 없음
2003	21	구체적 언급 없음	구체적 언급 없음
	22	전체 면접내용을 모두 문자화하여 기록함; 구체적 언급 없음	구체적 언급 없음
	23	전사본에 대한 반복적 읽기; 빈곤여성가장의 삶의 과정이 드러날 수 있는 주요 테마를 찾은 후 중요한 테마를 범주화함	구체적 언급 없음
	24	토대이론 접근법; 귀납적 방식	구체적 언급 없음
	25	van Manen의 주제분석방법; 부분과 전체의 균형 유지하기	구체적 언급 없음
	26	Miles와 Huberman, 그리고 Dey가 제안한 3단계를 절충 수정하여 사용함	상호주관적 합의가 이루어짐
	27	van Manen의 주제분석방법; 부분과 전체의 균형 유지하기	구체적 언급 없음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수행된 가족학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그리고 한국가족관계학회지에 게재된 27편의 질적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연구의 철학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거의 모든 연구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마 국내의 가족학계에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적 연구의 철학적 전통이나 배경, 또는 연구(research)에 대한 패러다임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제 연구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철학적 전통은 질적 연구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개념화하고, 질문하고, 해석하고, 정당화하고, 보고하는데 있어서의 방법론적 선택에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목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이해하고자 함"이라는 목적을 서술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기능주의와 상관관계의 태도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마도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인식론적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연구자들이 특정 인식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너무나 당연히 생각한 나머지 이에 대한 자문을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즉, 연구 방법이 주제와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주제와 목적이 내재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에 어떤 종류의 연구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를 연구의 주제와 목적이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대부분 심층면접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심층면접이 진행된 과정이나 절차를 살펴볼 때, 진정한 의미의 심층(in-depth) 질적(qualitative) 면접(interview)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피상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는 대부분이 녹음된 내용을 전사한 필사본이었으며, 이러한 자료들의 분석방법은 근거이론 접근법과 van Manen의 분석법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주관적 합의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1편이었으며, 나머지는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음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은 지면상 언급하지 않았으나,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질적 글쓰기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적, 기술적 용어들에 대한 합의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질적 연구가 단순히 사회과학 연구의 대안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자로서, 객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연구 참가자로서,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대화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끌어 내는데 자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접 수 일 : 2004년 07월 15일
- 심 사 일 : 2004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9월 24일

#### 【참 고 문 헌】

- 모수미 등(1996). *가정학원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석학회(1996). *해석과 이해*. 서울: 지평 문화사  
 Ambert, A., Adler, P. A., Adler, P. & Deitzner, D. F. (1995).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879-893.  
 Deacon, S. A. (2000). Creativity within qualitative research on families: New ideas for old methods. *Qualitative Report*, 4(3/4), <http://www.nova.edu/ssss/QR/QR4-1/deacon.html>  
 Eisner, E. W.(1991). *The enlightened eye*. New York: Macmillan.  
 Eisner, E. W. & Peshkin, A. (1990). *Qualitative inquiry in education: The continuing debate*. New York: Teachers College.  
 Goodwin, W. L. & Goodwin, L. D. (1996). *Understan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Habermas, J. (1972).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London: Heineman.  
 Hultgren, F. H.(1989). Introduction to interpretive inquiry. In F. H. Hultgren & D. L. Coomer (Eds.). *Alternative modes of inquiry in home economics research* (37-59), Peoria, IL: Glencoe.  
 Gadamer, H. G. (1975). *Truth and method*. New York: Crossroad.  
 Kockelmans, J. J.(1994). *Edmund Husserl's Phenomenology*, 임현규 옮김(2000). *후설의 현상학*. 서울: 청계.  
 Kvale, S. (1983). The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 A phenomenological and a hermeneutical mode of understanding.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14 (2), 171-196.  
 Lincoln, Y. S.(1990). Toward a categorical interpretative for qualitative research. In E. W. Eisner & A. Peskin.(Eds.). *Qualitative inquiry in education*(277-295),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McClelland, J. (1995). Sending children to kindergarten: A phenomenological study of mothers' experiences. *Family Relations*, 44, 177-183.  
 Morrow, S. L. & Smith, M. L. (1996). Constructions of survival and coping by women who have survived childhood sexual abuse. *Journal of Counseling Psy-*

- chology, 42, 24-33.
- Palmer, E. R.(1969). *Hermeneutics: Interpretation Theory in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and Gadamer*, 이한우 옮김(1990).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 출판사.
- Radnitsky, G.(1970). *Contemporary schools of metascience*. Gothenburg, Sweden: Akademiforlaget.
- richardson, :L (1992). The poetic representation of lives: Writing a postmodernis sociology. In N. K. Denzin(ed.). *Studies in symbolic interaction*(19-28), Greenwich, CT: JAI Press.
- Smith, L. M.(1990). Ethics in qualitative field research: An individual perspective. In E. W. Eisner & A. Peskin. (Eds.). *Qualitative inquiry in education*(258-276),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Silverman, H. J.(1984). Phenomenology: From hermeneutics to deconstruction. *Research in Phenomenology*, 16, 19-34.